

“저층 주거지 모델 개발해 주거·삶의 질 높여야”

아파트 숲속서 애물단지 된 노후 단독주택 어떻게 해야 하나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 재개발 대상에서 소외된 도심 내 단독주택, 5층 이하 건축물 등이 집적돼 있는 저층주거지가 급속히 쇠락하면서 도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저층주거지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조성된 곳이 대부분으로, 시설 노후로 인해 재해 위험, 범죄 발생 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택소유주들 상당수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미래 개발을 염두해 개량이나 리모델링 없이 저소득층, 서민 등에게 세를 주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소유주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어려워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광주 시내 자치구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건설업체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아닌 중소건설업체, 공공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시 빈집 6254호, 통계청 3만 3569호로 집계=광주시가 공식 집계하고 있는 빈집은 모두 6254호다. 1년간 수돗

재해 위험·범죄 발생 상존
주택 소유주 상당수 이사
리모델링 없이 저소득층 세 살이
중소건설업·공공기관 등 참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확대해야

물, 전기 등을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추정한 것이다. 동구가 944호로 가장 적고, 광산구가 1571호로 가장 많다. 서구 1088호, 남구 1256호, 북구 1395호 등이 비어있는 집이다.

하지만 통계청은 광주의 빈집을 3만 3569호로 집계하고 있다. 동구의 경우 총 주택수가 3만3266호인데, 빈집이 무려 2496호로, 총주택수 대비 빈집 비율이 광주평균(6.6%)을 초과하는 7.5%에 달했다. 총주택수와 빈집 수는 북구가 15만 4667호와 1만853호로 가장 많았다. 주택 유형별 빈집을 살펴보면 5405호가 단독주택, 2만7710호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

트다. 이 같은 통계의 차이는 기준에 의해 달라지지만, 빈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두 기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시는 이들 빈집의 소유 형태, 소유주와의 협의 등을 거쳐 철거나 매입해 자치구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철거한 부지는 텃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일정기간 사용하고, 소유주에게 남기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이 매년 10억원 내외에 불과한데다 소유주도 금전적인 이익이 없어 지지부진한 상태다.

◇아파트 개발 아닌 대안 개발 모색해야=거주민과 토지소유주가 중심이 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를 서둘러야 하지만 토지소유주 간 갈등이나 마찰, 복잡한 행정절차 및 지원 미흡,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민간기업의 참여 저조 등으로 대부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사업비의 70%를 저리로 융자해주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광주에서 단 1건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5건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의 경관, 주거지 특성,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한 저층 주거지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주 및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원형’이나 ‘우리동네살리기형’을 통해 동구 동명동, 서구 농성동, 남구 사직동·양림동, 광산구 도산동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주차장,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 역시 거주민의 ‘지속 거주’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대책이 되지 못해 토지 가격만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각 자치구들은 주택개량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이를 통해서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봉수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이사는 “지금까지 아파트 재개발은 추정수익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중견 건설업체 이상이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부지 자체가 이미 소진됐다고 봐야 한다”며 “중저층의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새천년 상품권’ 발행...22개 시군 확대

15개 시군 발행 상품권도 확대

전남도는 지역상품권인 ‘전남 새천년 상품권’을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과 함께 골목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자금 순환을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지수당 등 저소득주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새천년상품권으로 주고, 지원 금액의 절반은 도비로 나머지는 시군비로 충당한다. 또 현재 도내 15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시군 지역상품권도

올해 안에 22개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 도 예산으로 할인율 3%를 지원해 시군 지역상품권의 할인율을 6%로 끌어올려 상품권 유통 확대를 도울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날 22개 시군 지역상품권 담당과장과 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이 같은 내용의 지역상품권 발행 방안을 논의했다.

새천년상품권과 시군 지역상품권 병행발행으로 인한 혼선도 사전에 조정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 지역상품권의 경우 통합네이밍 사용으로 상품권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일하는 방식 개선 현안 토론회’ 마무리

광주시가 정중제 행정부시장 주재로 진행한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업무 공유를 위한 현안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9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19일 도시교통, 군공 항이전본부까지 총 10회에 걸쳐 실·국 단위로 진행됐다.

정 부시장은 광주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 공직자의 태도와 의지를 고양시키고 효과적으로 일하고 인정받는 비법을 직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특히 실·국 단위 현안과 쟁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법, 일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을 통해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또 “좁게 일하고 인정받는 비법”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광주시 공직자

로 시작해 행정안전부 고위공직자로 살아 온 30여 년의 경험과 지혜를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토론회에서는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와 세계인권도시 포럼 연계방안 ▲광주대표유스 선정 ▲광주 폴리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직원들은 ▲태블릿 도입 회의 운영 ▲직원 실시간 소통 다각화 ▲의정자료공유시스템 도입 ▲사무실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건의했다.

정 부시장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광주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28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광주시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2019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한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조경수협회 광주전남서부지회, 광주조목도시거버넌스, 광주생명의 숲도 참여한

다. 행사 당일 나눠 주는 나무는 대추나무, 서향나무, 앵두나무 등 3종과 로즈마리 허브 1종을 포함 총 4종 8000여 그루이며, 시민 2000명에게 1인당 4그루씩 선착순 무료로 나누어 줄 예정이다.

광주시는 봄철 시민 나무심기 붐 조성을 위해 매년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열고 있다. 지난해에도 2000여 명에게 1만여 그루를 나눠주 호응을 얻었다.

한편, 봄철 나무심기와 관련해 시민들이 손쉽게 나무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4월20일까지 나무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호남조경수유통센터, 북구 운정화훼단지 등 민간법인이 운영하는 상시 판매장도 개설돼 나무와 식재 자재 구입, 나무심기 요령과 사후관리 방법 등도 상담해 주고 있다.

광주시 정대경 공원녹지과장은 “봄철 나무심기와 내 나무 갖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원으로 가꾸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자원봉사 선도도시 선언·비전 선포식’이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광주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선도도시 선언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화의 성지 광주 ‘자원봉사 선도도시’ 선언

나눔과 연대 공동체 정신 계승

광주시가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자원봉사 선도도시 광주’를 선언했다.

광주시는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광주시자원봉사센터, 5개 자치구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봉사 선도도시 광주’ 선언과

민선7기 동안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식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광주시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좇아 자기희생을 통해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렸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광주공동체를 지켜냈다”며 “150만 광주시민은 자랑스럽고 위대한 광주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실현하기 위

해 자원봉사 선도도시 광주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자원봉사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원봉사가 이뤄지도록 자원봉사 선도도시 종합발전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자원봉사 네트워크 및 기반 강화 ▲자원봉사 문화 및 참여 확대 ▲자원봉사 관리혁신 및 협력강화 등 3개 영역에서 16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우선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 공익목적 운영 단체 등을 사회공헌 일자리로 등록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시 이용섭 광주시장은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이 시민의 일상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광주를 자원봉사 선도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선착순

엘림형 태양발전소 분양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